

자화상을 통해 만나는 인간, 그리고 나



자화상은 감정을 표현하는 풍부한 표정과 화가가 겪은 삶의 내력이 담겨 있다. 렘브란트의 '탕자로서의 자화상' (위)과 쿠르베의 '절망하는 남자로서의 자화상'.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감정의 자화상

박홍순 지음

인간을 규정하는 말 가운데 '이성적 존재'라는 표현이 있다. 얼핏 이성만이 인간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성을 인간의 근원적인 특징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반대편에 자리한 감정은 열등한 지위로 추락한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정은 가끔씩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철이 들면서는 감정을 숨기거나 자제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감정의 속살과 대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미술관 옆 인문학'의 저자이자 생활 속 인문학을 구현하기 위해 애써왔던 박홍순 작가는 인간의 감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절망과 고독, 분열에서 연민, 열망에서 상실까지

프리다칼로·렘브란트·고갱...

양철북·햄릿·레미제라블...

자화상과 소설이 만나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순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저자가 이번에 발간한 '감정의 자화상'은 자화상과 소설을 통해 만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한다. 감정 발현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자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지만 사회 문화적 인식 때문에 애써 억압해왔던 게 사실이다.

"감정과 은밀한 만남을 위한 가장 적절한 안내자는 자화상과 소설이다. 자화상은 감정을 표현하는 풍부한 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화가가 직접 겪은 삶의 내력까지 스며들어 있기에 친밀한 만남을 주선한다. 소설은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고뇌와 갈등이 펼쳐져 넓고 깊은 감정의 수위지 역활을 한다."

물론 화가의 자화상만으로 그 속에 드러난 감정의 복잡한 양상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자화상은 화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어떤 작품들은 화가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한

다. 저자가 화가의 인생을 찾아보고 인과 관계에 주목하며 시대상황을 연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프리다 칼로(1907-1954)의 '엘로에서 박사에게 보낸 자화상'은 상상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그녀는 불행에 자기 연민을 통해 극복한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다. 그림에는 뾰족한 뿔을 억누르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남편 디에고의 복잡한 여자관계 때문에 프리다 칼로는 이혼하게 되는데, 그림에는 사랑의 상처로 생긴 자기 연민이 투영돼 있다.

저자는 그림과 연계해 사랑의 상처로 인한 자기 연민을 보여주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주목한다. 프리다의 자화상이 상대에게 들리고 싶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 그림이라면, '안나 카레니나'는 감정의 출구를 찾지 못해 행동으로 옮기는 주인공을 형상화한다. 소설 속 '안나'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지지만 결국 외면을 받는다. 안나는 사랑이 식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구스타브 쿠르베(1819-1977)의 '절망

하는 남자로서의 자화상'은 절망과 경악이 교차하는 작품이다. 프랑스 혁명 시대를 살아가던 쿠르베는 공화주의에 공감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했다. "자화상을 통해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낸 것"이라던 그의 자화상에는 혁명과 쿠데타, 왕정과 공화정 등 당시의 역동적인 역사가 드리워져 있다.

저자는 혁명 속 절망의 상황을 소설 '레미제라블'에 투사한다. 빅토르 위고는 혁명의 쇠퇴와 함께 찾아오는 회피, 자포자기로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위고는 혁명의 배반이 초래한 시대의 통증을 절절하면서도 뾰뚱하게 묘사해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이밖에 저자는 렘브란트의 '탕자로서의 자화상'과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을 기만이라는 감정을 통해 분석하고, 고야의 '자화상'과 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을 모티브로 고독 속에서 내일의 모습을 그려본다. 또한 프로이트의 '반영, 자화상'과 마르케스의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을 매개로 육구가 지닌 감정의 실체를 파고든다.

(서해문집·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조경란 지음 '언젠가 떠나려가는 집에서'

소설가 조경란이 새 소설집 '언젠가 떠나려가는 집에서'를 펴냈다. '일요일의 철학' 이후 5년 만에 내는 소설집이다. 책에는 표제작 '언젠가 떠나려가는 집에서'를 비롯해 '매일 건강과 시', '오래 이별을 생각함' 등 8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책은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살피는 세심한 문장과 잔잔한 울림을 주는 고백조의 어조가 두드러진다. 지난 4년여의 시간 동안 고민해 온 작가의 삶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 더불어 가족의 형태에 관한 문제 또한 섬세하게 파고들며 온전히 나오거나, 가족 속의 나, 혹은 사회 속의 나 등 수많은 개인 '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도서관 우리문을 열고 신발을 찾아 신으면서 나는 경아가 시장 왔다가 들려왔다는 말을 어떻게 질문으로 할지 궁금했다. 경아가 질문하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린다는 걸 이제는 그 애도 알 거다. 벤치 뒤 성긴 숲에서 매미 소리가 울렸고 내가 옆에 앉자 경아가 무덤덤한 소리로 물었다." 표제작 '언젠가 떠나려가는 집에서' 또한 가족의 형태를 탐구해온 저자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서른일곱 살 남자인 '나'는 '아버지'의 양자다. 아버지에 따르면 "다른 집"에서 온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두 남자의 집에 새로운 가사도우미 '경아'가 찾아온다. 경아의 등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한 세 사람이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으로 발전한다.

황예인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어떤 관계가 저마다의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지 않겠나, 이번 소설집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관계는 여성 인물의 뚜렷한 존재감과 그 영향력을 통해 그 무늬를 짜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진다."

(문학고지서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손진호 지음 '지금 우리 말글'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것은 2011년이다. 이전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장면'으로 말했다. '짜장면'은 경직된 언어규범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사용하는 이들의 씹씹이에 따라 생명력을 유지하기도 '죽은말'이 되기도 한다. 표준어, 방언, 신조어, 줄임말 등 요즘 우리의 말과 글은 다양하게 전해지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손진호 어문기자가 '지금 우리 말글'을 펴냈다. 30년 내공의 어문기자가 전하는 친절해설서인 우리말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1987년 동아일보 교열부에 입사해 자연스레 사전을 찾는 일이 많았던 저자는 당시 오류를 찾아 600여 개를 바로잡았다. 이후 동아일보에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를 꾸려나갔고 지금의 책으로 완성됐다.

저자는 146개의 표제어를 바탕으로 우리말글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으며 낱말의 어원과 변화 과정 등을 꼼꼼히 짚었다. 지루해지기 쉬운 말법을 재미있게 알려주려 방송이나 영화 등에 나타난 낱말을 인용해 '지금 우리말글'의 흐름을 살렸다. 또한 남북한 언어 이질화 문제('식해와 식해'), 복수표준어 문제('짜가지와 짝수' 등), '초마면'을 '짬뽕'의 순화어로 올려놓은 국어사전 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A는 표준어, B는 비표준어이므로 A를 써야 옳다"는 글에서 벗어나자. 지금은 비표준어이지만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낱말을 찾아내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사투리로 묶여 있거나 사전에 오르지 못했어도 감칠맛 나고, 삶의 향기가 오롯이 배어있는 낱말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진선북스·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로베르트 슈만 지음, 정세진 번역 '젊은 음악가를 위한...'

"당신이 온 마음으로 음악을 정말,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음악가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할수록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위대한 음악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구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에 있을 것이고,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 그는 1810년 독일 작센 주의 츠비카우 시에서 태어났다. 출판업을 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음악 못지않게 문학에도 심취했다. 슈만은 1834년 동료들과 함께 음악 잡지인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만들고, 10년간 편집장 역할을 하며 글을 썼다.

특히 '젊은 음악가를 위한 슈만의 조언'에 실린 슈만의 조언들은 그의 피아노 작품집 '어린이를 위한 앨범'과 함께 발표하려고 쓴 것으로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음악가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스티븐 이설리스가 슈만의 글들을 모아 '연주에 관하여' '연습에 관하여' '작곡에 관하여' 등의 주제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글에 해설을 달았다. 오늘날 독자들의 정서에 맞춰 쉽게 풀어 쓴 해설에서 30여 년 동안 활발하게 공연을 해온 음악가의 생생한 경험을 엿볼 수 있다.

이설리스 특유의 재치 있는 유머와 진솔한 음악 이야기로 재미를 더했으며, KBS 클래식 FM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노래의 날개 위에'를 진행해온 정세진 아나운서가 번역했다.

(클·1만3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